

제 25-03호

2025. 04. 02



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

트럼프 정부 1기와 다른 2기, 전망과 시사점

책임작성

엄 부 영 연구위원

(044-960-5365 / byeom@kosi.re.kr)

김 서 연 선임연구원

(044-960-5311 / sykim@kosi.re.kr)

이 은 실 선임연구원

(044-960-5355 / eslee@kosi.re.kr)

이 소 담 선임연구원

(044-960-5310 / sdlee@kosi.re.kr)

KOS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Korea SMEs & Startups Institute

※ KOSI 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os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1. 서론
2. 트럼프 정부 1기 vs. 2기 비교
3. 트럼프 정책에 대한 주요국들 대응
4. 전망 및 시사점

요 약

◆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美우선주의 정책이 단기간 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추진

- 특히 '선관세 후협상' 패턴으로 추진, 수시로 변하는 트럼프식 협상 방식은 해당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
 - 품목관세, 특정국 관세 등은 기부와, 상호관세 발표(4.2 예정) 이후에도 통상협상은 다양한 이슈들과 연계해 지속될 전망

◆ 트럼프 정부 1기 vs. 2기

- 對中 제재, 美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트럼프 1기 정부와 달리, 2기는 對中 제재 강화, 전 세계 압박과 투자 유치, AI·에너지 개발과 경제안보에 주력

표 1 트럼프 정부 1기 vs. 2기

구 분		1기	2기
정책	관세·통상	특정 국가·품목에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조치	품목관세, 특정국 관세, 상호관세 등을 비경제적 이유와 연계, 부과
	산업·기술	감세·규제완화, AI 예산 확대	AI·에너지 개발 집중 및 회원국 투자 유도
	외교·안보	NATO 국방비 인상 압박, 화웨이 제재	국방비 인상 압박, 러우 전쟁 종결 협상, 국경보호
영향		美 특정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업비용과 소비자 부담, 중국 내 외국기업의 탈중국화, 對美 투자 시도	관세조치 영향에 대한 美 내 부정적 견해가 다수적, 해외 주요 기관 역시 세계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 트럼프 정책에 대한 주요국들 대응

- 美 관세조치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패턴은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

표 2 트럼프 정책에 대한 주요국들 대응

구 분	조 치	국 가
강경 대응	관세조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보복조치 단행	캐나다
강온 대응(2-track)	보복조치와 협력(대화) 2-track으로 대응	중국, EU
온건 대응(中立)	美 대응을 자제, 보복조치는 언급하나 실제로는 미이행	멕시코, 브라질
온건 대응(親美)	美 정부에 적극 협조, 투자·구매 확대 및 산업협력	대만, 일본, 인도, 베트남

◆ 전망 및 시사점

- (전망) 트럼프 정부의 美우선주의 기조는 심화, 현 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관세조치와 협상은 그 파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추진되긴 어려울 것임
 - 이에, 주요국들의 美 관세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으로 접근 필요
- 본 보고서는 다음의 7개 시사점을 제시
 - 협상카드는 철저히 준비하되, 실제 협상은 전략적으로 접근
 -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력분야를 협상카드로 활용
 - 중소기업 무역피해 대비 적극적 통상대응 및 관리
 - 미국 및 주요 교역국의 중소·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 다자통상체계 활용 및 유사국 간 연대 추진
 - 국내 산업공동화 대비 및 중소 제조기반 강화
 - 리스크 대비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 고도화

01 | 서론

◆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미우선주의 정책이 단기간 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추진

- 1기 對中 제재 차원의 관세조치와 달리, 2기는 안보를 이유로 우방국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관세와 연계하여 협상을 진행 중임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롤 모델로 언급한 美 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 Jr., 1897 ~ 1901) 기조와 유사* 1) 2) 3)

* 윌리엄 매킨리는 1890년대 유럽과의 패권전쟁 당시 50%의 관세를 부과, 자국 산업을 보호하였고, 스페인 전쟁에서 푸에르토리코·필리핀·괌을 합병, 영토를 확장한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파나마, 러-우 전쟁 관여와 유사

◆ 특히 '선관세 후협상' 패턴으로 추진, 수시로 변하는 트럼프식 협상 방식은 해당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

- 美 정부는 특정국 관세, 품목관세가 기부과,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상호관세까지 예고(4.2)하고 비관세장벽의 사전철폐 또는 협상을 요구함
 - 또한 러-우 전쟁, 파나마 등 예기치 못한 정치적 이슈를 경제이익과 연계
- 이에 트럼프 1기를 경험한 국가는 '선협상 후대응' 원칙하에 강경대응을 예고하거나 사전 투자(금) 및 산업협력을 약속한 반면 대다수는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통상분쟁 심화 등 악화된 조짐

◆ 美 정부는 이미 관세부과를 예고·단행, 협력을 암시하기도 하였으며, 4.2일 상호관세를 발표 예정인바, 본 연구는 트럼프 1기 정책과 영향을 2기와 비교 분석하고 주요국들의 주요 대응동향을 살핀 뒤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2017). "윌리엄 매킨리." <https://kr.usembassy.gov/ko/william-mckinley-ko/>

2) 서울경제(2025.03.05). "매킨리-트럼프의 '닭은꼴' 관세전쟁" <https://www.sedaily.com/NewsView/2GQ4NCFL3N>

3) 동아일보(2025.03.30). "100년 전 공화당은 관세로 흥했고, 관세로 졌다[트럼프미디어]"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330/131309020/1>

02 | 트럼프 정부 1기 vs. 2기 비교

가. 트럼프 1기 정책 주요 내용

◆ 관세·통상정책

- (對세계) 트럼프 1기 정부는 세이프가드와 수입제한을 활용, 특정국, 특정품목 중심으로 관세를 부과

표 3 트럼프 1기 품목별 관세 부과

품 목 ^{주1}			관세율	근거법령	부과일
중국	태양광 셀/모듈 (2.5GWh 초과 물량)		1년차 30% ~ 4년차 15%	무역법 201조 세이프가드	2018.2.
한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 (120만대 초과 품)	3년간 최대 20 ~ 50%		
		부품 (5 ~ 9만개 초과 품)	1년차 50% ~ 3년차 40%		
EU	항공기		10%	무역법 301조	2019.10.
	농산물·주류·공산품		25%		
철 강			25%	무역확장법 232조	2018.3.
알루미늄			10%		

* 자료: KIEP(2018)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對중국) '18.7월 미국이 3,600억 달러 상당 中 수입품에 15~25%, 중국은 1,350억 달러 美 수입품에 5~25% 관세를 부과하면서 1차 무역분쟁 발발, '20.1월, 美·中이 1단계 무역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일단락됨

표 4 트럼프 1기 미·중 관세 부과

날 짜	美의 對中	中의 對美
'18.7월	340억 불(818개 품목, 25%)	338억 불(545개 품목, 25%)
'18.8월	160억 불(279개 품목, 25%)	142억 불(333개 품목, 25%)
'19.5월	2,000억 불(5,745개 품목, 10% ⇒ 25%)	580억 불 (5,207개 품목, 5~10% ⇒ 5~25%)
'19.9월	1,100억 불(3,243개 품목, 15%)	285억 불(1,717개 품목, 5~10%)

* 자료: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브리프(2020)

- 아울러 양국은 '19.12.15 부과 예정이던 추가관세 즉시 유예, 기존에 부과된 추가관세 부분적 감축에 합의
- 그러나 '21년 중국의 美 수입액은 총 2,876억 달러로 당초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중국은 '20년 코로나19 발발을 사유로 제시함*
- * 美·中 1차 무역협약은 이행률이 57.5%에 불과, 분야별로는 농산물이 83%로 비교적 높고, 공산품(59%), 에너지(37%), 서비스업(52%)으로 저조
- (對한국) '18.1월 삼성 및 LG 수입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23.2월 종료)
 - * 120만 대 이하에 대해서는 20%, 그 이상에 대해서는 50% 적용
- 또한 한미 FTA('12년 발효)는 3차례 개정 협상을 거쳐 '19년 최종 발효

표 5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美 관심사항	- [화물차] 對韓 수입 화물차에 대한 관세 25%를 '40년까지 유지 - [車안전·환경기준] 美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시 韓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작사별 차량수 기준 확대(기존 2.5만 ➡ 개정 5만), 차기('21~'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 시 美 기준을 고려하고 소규모 제작사 기준(4,500대 이하 판매社) 유지 등
韓 관심사항	-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개선으로 소송 남발 제한 및 정부의 정책 권한 보호, 무역 구제를 위한 절차 개선 및 투명성 확대,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 자료: KIEP(2015; 2022)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기타 주요 정책

- (산업·기술)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AI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 (감세) '감세와 일자리법(TCJA)'으로 법인세를 21%까지 인하하고 해외 발생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
 - (규제) 신규 규제 수립 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주요 경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신설을 억제
 - (첨단기술) 트럼프는 AI 발전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19.2월), 전년 대비 '21년도 AI 예산을 34% 증액(1.8조원)하고 양자 기술 예산을 20% 증액(8천억)
- (외교·안보)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익에 입각한 일방주의 외교·안보를 추구, 거래주의적 동맹 기조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對중국 강경 정책 추진
 - NATO에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을 강조하고, 韓에 방위비 5배 인상, 日에 미군 주둔비용 4배를 요구하는 등 동맹 방위비 압박

- 화웨이와 산하 계열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하고 화웨이에 미국 기술·SW가 사용된 첨단 반도체 등을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

◆ 대내외 여건

- 트럼프 1기 당시 美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08년)로 인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진입, 물가 상승세가 안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관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제한적
 - (GDP 성장률) '17년 2.2% → '18년 2.9%, (실업률) '17.3월 4.7% → '18.12월 3.7%, (소비자물가CPI) 연준 물가 목표(2.0%) 수준에 근접, (금리) '17.3월 1.0% → '18.12월 2.5%

◆ 영향

- (미국) 對中 무역적자 축소와 산업보호 긍정적, 국내 가격상승 부담 초래
 -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개선된 반면, 타 국가를 중심으로 적자 폭이 증가

그림 1 美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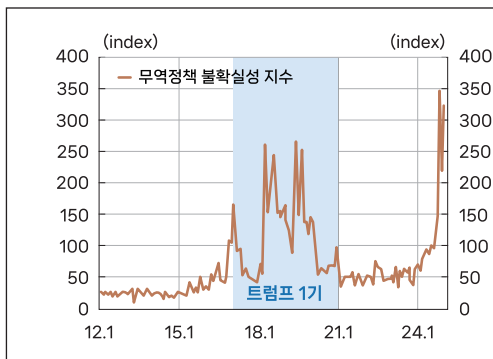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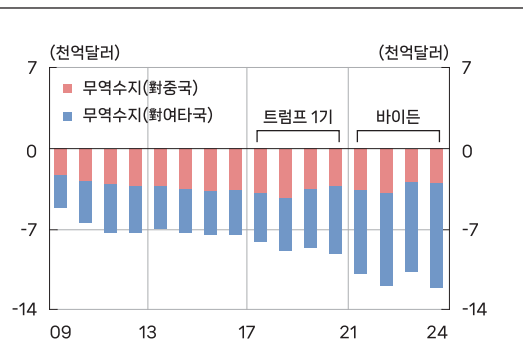


그림 2 美무역수지



* 자료: 한국은행(2025)이 무역협회 및 Caldara et al.(2020)을 참고해 작성한 자료를 재인용

- 한편 특정품목 관세는 해당 품목과 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나, 동 품목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 다수 의견임
- (세계) 관세 회피를 위해 중국 내 외국기업들의 탈중국화 급진행
 - 한국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으로 양국 수출 1.8조 원 감소, 국내 산업 피해 3.9조 원 발생(KIEP, 2021) 하였으며, 2018년 삼성·LG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로 인해 2019년 미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였음

나.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및 영향

◆ 관세·통상정책

- (對세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부과 시행 및 상호관세 시행 예정
 - (철강·알루미늄 관세) 美의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발표(2.10), 시행(3.12)
 - (상호관세) 무역불균형 및 불공정행위를 근거로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외국 관세와 비관세장벽(부가세 등) 동일 수준의 관세 적용 발표(2.13), 시행 예정(4.2일)
- (對캐나다·멕시코) 캐나다·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25% 관세 부과 시행
 - (일반 상품) 약물·불법 이민자를 이유로 캐나다·멕시코 상품에 25% 관세, 캐나다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10% 관세 부과(3.4)
 - (자동차) 현지 투자 및 수입업체 의견을 반영, 한 달간 관세 면제 발표 (3.5), 시행(3.5부터 1개월)
 - (USMCA 부합 제품) 25% 관세 유예 발표(3.6), 시행(3.7~4.2)
- (對중국) 2차리에 걸친 추가 관세 조치로, 20% 인상된 관세 시행
 - (10% 추가) 약물 및 中의 무역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발표(2.1), 시행(2.4)
 - (10% 인상 추가 관세) 中의 보복관세 등 조치로 인해 10% 추가 인상, 결과적으로 20% 관세 적용 발표(2.27), 시행(3.4)
- (對EU) 미국 차량·농산물 수입제한 대응, EU에 최대 25% 관세 부과 가능성
 - EU 상품(특히 자동차·의약품) 최대 25% 관세 부과 가능성 발표(2.27), 시행(미정)
- (對한국) 높은 평균관세율(4%)과 무역불균형을 언급, 주요 수출품 (자동차, 반도체) 검토 발표(3.5), 시행(미정)
- (CHIPS·IRA) IRA 폐지는 트럼프 후보 시절부터, CHIPS는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언급되었으나,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음

◆ 기타 주요 정책

- (산업·기술) AI 및 디지털 기술의 혁신 촉진, 에너지독립 강화, 규제 완화 및 기술투자 촉진 등을 목표로 다수의 행정명령 발표

표 6 트럼프 2기 주요 산업·기술 정책('25.3.13일 기준)

구 분	세부 정책	주요 내용	행정명령 발표일
AI·디지털 기술	AI 인프라	미국 내 AI 기술개발 지원과 데이터 센터 관련 인프라 확장	1.21.
	AI 혁신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고, AI 기술의 혁신을 촉진	1.23.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산업 성장과 블록체인 기술촉진	1.23.
에너지·환경	미국 에너지독립	미국 에너지독립 강화와 전통적 에너지 탐사·생산 지원	1.20.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알래스카의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개발 등	1.20.
규제 완화	-	新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를 최소 10개 이상 폐지	1.31.
기술투자 촉진	-	외국인 투자 정책수정, 미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	2.21.

* 자료: 백악관(White House) 공식 웹사이트, 연방등록부(Federal Register)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외교·안보) 국제 기구 탈퇴, 국경 보호 강화, 이란 제재 강화, 외교 정책 통합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정책 제시

표 7 트럼프 2기 주요 외교·국방 정책('25.3.14일 기준)

구 분	세부 정책	주요 내용	행정명령 발표일
국제 기구·조약 관련	WTO 탈퇴	WHO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행정명령 발표	1.20.
	국제 기구 검토	미국 이익에 반할 시 탈퇴 가능 행정명령 발표	2.4.
국방·안보	국경 보호	외국인의 불법 침입과 범죄 활동 대응 조치	1.20.
	국가 비상사태	남부 국경 국가 비상사태 선언 등	1.20.
	미사일 방어	'아이언 돔'과 유사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계획	1.27.
	이란 제재 강화	이란 핵 개발과 테러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등	2.4.
외교정책 통합	-	국무장관 권한 강화 등을 통한 외교 정책 통합	2.12.

* 자료: 백악관(White House) 공식 웹사이트, 연방등록부(Federal Register)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대내·외 여건

• (대내적) 거시경제 불안정 및 인플레이션 유발성 정책의 위험성

- 美 연방정부 재정적자, 정책 불확실성 증대로 거시적 지표 불안정성 확대

* (S&P500 변동률, 전월비, %): 24.10월-0.99 → 24.11월5.73 → 24.12월-2.50 → 25.1월2.70 → 25.2월-1.42 → 25.2월-7.01

(환율 변동률, 전월비, %): 24.10월4.22 → 24.11월1.61 → 24.12월5.89 → 25.1월-1.43 → 25.2월0.38 → 25.2월-0.39

(기준금리, 연이율, %): 24.10월5.5 → 24.11월5.25 → 24.12월5.00 → 25.1월4.50 → 25.2월4.50 → 25.3월4.50

- (인플레이션 유발) 고율 관세(수입원자재·소비재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정(글로벌 물류비 상승), 정부지출 증가로 물가 상승 압력·변동성 증대)*

*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전년비, %): 24.10월2.6 → 24.11월2.7 → 24.12월2.9 → 25.1월3.0 → 25.2월2.8

(생산자물가^{PPI} 상승률, 전월비, %): 24.10월0.0 → 24.11월0.2 → 24.12월0.4 → 25.1월0.2 → 25.2월0.4

• (대외적) 다수 교역국에 대한 조치 부과로 정치경제적 반감과 위기 고조

◆ 영향

• (미국) 트럼프 관세정책의 현지 영향에 관해선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

- (Washington Post)⁴⁾ 관세정책만으로는 제조업 부활이 어려움 강조

- (FOMC 파월 의장)⁵⁾ 파월 의장은 관세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언급, 금리를 동결하고 양적 긴축을 축소

• (세계) 미 관세부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세계경제 전망치 하향

- (OECD)⁶⁾ 세계 경제성장률이 3.2% → 3.1%(3.0%, '26)로 전망, 그 원인으로 글로벌경제 분절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꼽음

* 한편 미국 2.8% → 2.2%, 중국 5.0% → 4.8%로 전망, 중국의 경우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체적인 내수 부양을 낮은 하락률의 이유로 언급

- 한국의 경우, 최근 국내외 기관 모두 1% 성장률을 예고

* (AMRO) 1.9%('24.12) → 1.6%('25.3), (OECD):2.1%('24.12) → 1.5%('25.3), (한국은행) 2.0%('24.12) → 1.5%('25.3)⁷⁾

4) Washington Post(2025.03.09). "Trump's Tariff Face a Long Odds in Bid to Bring Factories Home."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5/03/09/trump-tariffs-factories/>

5) 블로터(2025.03.20.) 美 연준 또 금리동결...파월 "관세 인플레이션 일시적"에서 재인용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33474>

6) OECD(2025.03.) "Steering through Uncertainty." OECD Economic Outlook.

7) 중앙일보(2025.03.22.) "줄줄이 내려가는 韓 경제전망...IMF도 1%대 제시 가능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2567>

03 | 트럼프 정책에 대한 주요국 대응

◆ 美 관세조치에 대한 주용국의 대응 패턴은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

◆ (유형 1) 강경 대응

- (캐나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국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사이코 드라마'라고 표현

◆ (유형 2) 강온 대응(2-track)

- (중국)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와 더불어 WTO 제소, 일부 품목에 대한 美 수출 자격 정지 등 非관세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對美 보복관세에 유화적 단서 마련, 美·中 2단계 무역합의 검토 등 대화 채널 복원 노력을 병행
- (EU)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산 LNG·무기 구매 확대, 자동차 관세 인하 등 협력 패키지를 제안하는 한편, 미국 관세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 맞대응을 예고하고 자강 행보를 본격화하는 등 對EU 압박에 외교전과 맞대응의 2-track 전략 강구
 - 또한 유럽과 남미를 아우르는 거대 경제 단일시장 출범에 합의('24.12)한데 이어, 최근 인도와 FTA 협상을 재개하는 등 제3국과 경제협력을 강화
 - 영국 정부는 최근 잇달아 중국을 방문, 에너지·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대응을 위한 英·中 관계개선 가속 행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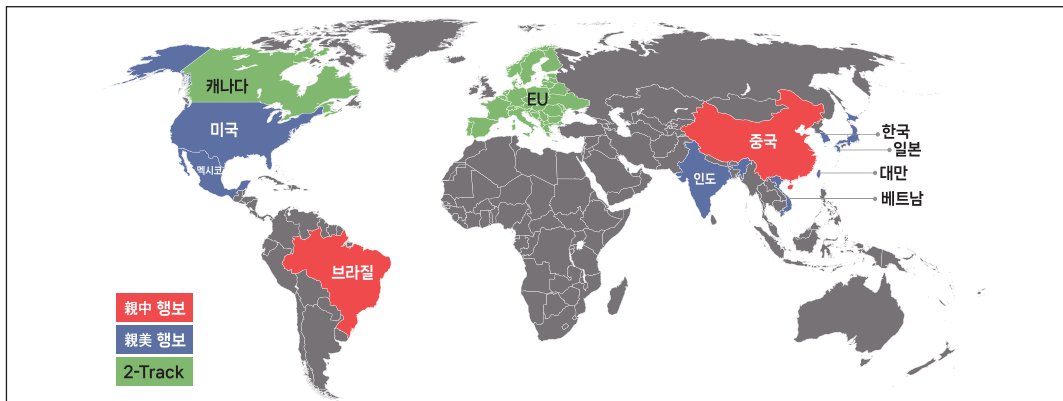
◆ (유형 3) 온건 대응(中立)

- (멕시코) 마약 및 중국산 밀수품 단속 강화 등 미국과 중국 공동전선 구축을 통해 美 정부에 밀착 행보
- (브라질) 올해 BRICs 의장국으로써 다자주의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트럼프 정부 관세에 적극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관세에 직격 당한 국가들(멕시코, 콜롬비아 등)에 친교 행보

◆ (유형 4) 온건 대응(親美)

- (일본) 미국산 LNG 수입 확대, US스틸 인수 철회 등 親美 행보와 동시에 미국에 지속적으로 관세 대상 제외를 요청했으나, 최근 트럼프 정부로부터 통화 평가 절하 정책에 대한 경고를 받는 등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함
 - 자동차는 일본의 對美 수출 1/3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미국의 對세계 자동차 관세 부과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관세제외의 요청을 지속하는 한편, 자국 기업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 (인도) 트럼프 취임 후 발 빠르게 정상회담·장관급 회의를 개최, 기존에 高관세 적용 품목들의 기본관세를 인하하고, 미국산 에너지·군수품 구매 확대, 양국 무역협정 체결 합의 등 인도 시장의 적극적 개방 의지를 표명
 - 모디 총리는 트럼프 1기 당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트럼프를 '내 친구'라고 지칭하며 공개적으로 지지, 향후 親美노선 지속 예상
- (베트남) 주요 교역상대국 중심으로 무역수지 개선 조치 마련*에 착수, 특히 對美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잇따라 내놓는 한편, 향후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서 미국 기술의 우선 도입을 독려
 - *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활용, 밀수품 원산지 둔갑 재수출 방지 대책 마련, 새로운 협상을 통한 시장 및 공급망 다각화,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상호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세금정책 검토 등
 - 트럼프 정부 초기에는 중국 최대 철강업체의 일부 철강 제품에 최대 27.83% 반덤핑 관세 부과 등 反中 방식의 親美 행보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미국에 대한 관세 인하, 구매 확대 등 수교 강화 방식으로 전환
- (대만) 對美 투자 및 구매 확대, 국방 예산 증액 등 반도체 관세 부과 회피를 위해 적극적인 親美 행보를 보였으나, 대만 내 비판 여론 고조와 美·우크라 정상회담 계기로 안보 불안감이 확산되며 反中 행보 강화
 - 한편 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업인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첫 참여국을 자청, 미국의 안보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그림 3 주요국 외교행보



* 자료: 뉴스·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04 | 전망 및 시사점

가. 전망

◆ 트럼프 정부의 美우선주의 기조는 심화,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이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한 것은 불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전엔 20~60% 관세를 부과하였고, 트럼프 1기~바이든 정부는 관세, 對中 제재를 오히려 심화

◆ 다만 현 관세조치와 협상은 그 파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추진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부활을 위해선 교역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對美 투자 유치 등을 이끌어 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관세를 협상 지렛대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농산물, 가스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상대국의 보복관세는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 한편 인플레이션을 저지하면서 2년 남짓한 중간선거를 고려, 관세 조치로 실익을 취한 뒤 법인세 감면, 기술규제 완화 등을 연이어 추진해야 하는 상황

◆ 트럼프 정부의 현 정책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와 정책결정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관세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美 부정적 영향이 단기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 동반 가능성도 제기되는 반면,
 - 윌리엄 매킨리(1980년대)의 관세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NBER, 2025)⁸⁾ 하나 당시 관세율은 매우 높았고, 트럼프 2기는 1기와 달리 투자 유치, 핵심자원 확보 등에 목표로 된 중장기적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 존재
 - 다만 對美 수출 저지가 교역국들의 경제침체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존재

8) Klein, A & Meissner C. M(2025). "Did Tariffs Make American Manufacturing Great? The New Evidence from the Grilled Age.." NBDR Working Paper 33100.

나. 시사점

◆ 협상카드는 철저히 준비하되, 협상은 전략적으로 접근

- 사전접촉을 통해 가스 수입 확대, 對美 투자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관세를 피하지 못한 일본과 인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투자를 통한 한국의 美 경제 기여를 강조하고, 협상을 관세와 협력분야로 구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만한 법·제도는 철저히 검토하되 협력은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보다 美 반응에 따라 수위조절 필요

◆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력분야를 협상카드로 활용

- 조선 제조, LG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미국이 협력 의사를 밝힌 분야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최근 존슨법 개정*을 고려, 군함 협력⁹⁾을 방위비 증액 등 협상카드로 검토, 동시에 조선·방산산업 및 연관산업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수반 중요

* 미국 외 국가에서 미 군함을 수리하거나 선박 제조가 가능하며, 중국 제외시 일본, 독일, 한국이 참여 유력

◆ 중소기업 무역피해 대비 적극적인 통상대응 및 관리

- 美 시장진입 애로의 돌파구로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가 심화될 것인바, 중소기업 타격 최소화를 위해 상계관세 등 조치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 실제 인도는 수입 철강에 12% 관세를 검토 중('25.2.21)이며, EU는 철강 수입량 15% 감축키로 결정함('25.1.1 예정)
- 최근 한국 역시 우회수출지로서 미국의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함께 실리적 관점에서의 중소기업 협력관계 재점검 필요
 - 한국 내 공장설립, 저가 기업 매수 등 중국의 다양한 진출유형(목적) 예의주시 중요
 - 특히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이 긴밀한 자동차부품 등 산업의 경우 공급망 점검 중요

◆ 미국 및 주요 교역국의 중소·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 민감품목 또는 국내 업계에 우려되는 조치 부과 가능성 대비 미국, 더 나아가 연관국 내 영향력 있는 협·단체, 교포 경제계, 중소기업 단체 등과 접촉, 공감대 조성이 중요함
 - 멕시코 자동차의 경우 관세 부과 직전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포드사가 백악관과 통화해 관세유예가 이뤄졌고 농산물의 경우 소비자 가격부담 우려가 커 유예가 이뤄졌던 사례 참고 필요

9) 업계 관계자는 군함이 조선업의 특성과 상이한 점은 있으나, 미래 안정적 수익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중앙일보, '15.3.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290>

◆ 다자통상체계 활용 및 유사국 간 연대 추진

- 불확실한 관세 조치, 상호관세 이후 FTA 재협상 또는 신규 협정체결 가능성으로 인해 시도되고 있는 국가 및 블록 차원의 연대 동향 예의주시 필요
- 또한 CPTPP의 경우, 美 관세의 피해규모와 한·일 민간품목·이슈 영향 비교를 통해 한국의 가입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RCEP 등 메가 FTA를 통한 관세피해 상쇄, 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 등도 중요

◆ 리스크 대비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 고도화

- 중소기업 글로벌 원팀 협의체*, KOTRA 등을 통한 美 정책변화 및 현지 동향(中企 영향 포함), 주요국 대응 등에 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 *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에 구성된 협의체로, 은행, 법무·회계법인, 공공기관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
-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美 관세·中 제재의 자사 제품 해당 여부 판단, 이전가격 대응, 환해지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 제공 필요
- 美 통상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품목을 파악, 수출다변화, 현지대응 등 지원이 필요하며,
 - 현지 기진출 또는 예정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디지털화 지원, 중소기업 간 동반진출 지원 등에 관한 수요 파악도 중요함

◆ 국내 산업공동화 대비 및 중소기업 기반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첨단산업 위주 對美 투자 증가, 우수인력 확보 시 국내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는바, 중장기적 관점의 중소기업 기반 강화가 필요함
 -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등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중요¹⁰⁾
- 한편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AI 리더십 강화 기조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AI 기술 개발·활용 확대를 독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협력 기회 모색이 필요함

10) 이근 교수는 "소부장 중심의 가치사슬 효율화"를 강조,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해 대미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국내 핵심제품은 지속적으로 수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한겨레, '25.3.5).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5340.html

참고자료

- 국가안보전략연구원(2019),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분석 : 미국 여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국제금융센터(2024), 「트럼프 2.0 미중 대립 항방 및 시사점」.
- 국제금융센터(2025), 「글로벌 동향 및 이슈」, 『국제금융속보』, 제7046~제709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한·미 FTA 3년의 이행 현황과 쟁점」, 『오늘의 세계경제』, 15(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 『KIEP기초자료』, 18(1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오늘의 세계경제』, 18(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 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와 전망」, 『세계경제포커스』, 3(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2(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4),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24(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동아일보(2025.03.30.), "100년 전 공화당은 관세로 흥했고, 관세로 졌다 [트럼프피디아]"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330/131309020/1>
- 미국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
- 미국 연방등록부(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
- 블로터(2025.03.20.), "美 연준 또 금리동결...파월 "관세 인플레이 일시적."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33474>
- 산업연구원(2024.12.26.),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 산업통상자원부(2018),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상세설명자료」.
- 서울경제(2025.03.05.), "매킨리·트럼프의 '닭은꼴' 관세전쟁 <https://www.sedaily.com/NewsView/2GQ4NCFL3N>
- 아시아경제, 「4·2 트럼프 상호관세, 韓포함 대미무역 흑자국 타깃 될 듯」, (2025.3.24.).
- 아주경제, 「WSJ "美 4월 상호관세에 한국 등 포함될 듯"」, (2025.3.24.).
- 연합뉴스, 「WB, 올 세계 경제성장률 2.7%..."트럼프 보편관세시 0.3%p 감소"」, (2025.1.17.).

- 연합뉴스, 「美연준 위원들 "관세, 물가에 영향...금리 신중히 접근해야"」, (2025.2.20.).
- 조선일보, 「환율, 美 관세정책 혼란 속 7.2원 하락...1451.0원」, (2025.3.12.).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2017), "윌리엄 매킨리." <https://kr.usembassy.gov/ko/william-mckinley-ko/>
- 중앙일보(2025.03.18.), "트럼프는 얘기 안해준다...미 해군 함정 '수익성 함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290>
- _____(2025.03.22.), "줄줄이 내려가는 韓 경제전망...IMF도 1%대 제시 가능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2567>
- 한겨레(2025.03.05.), "미국발·중국발 산업공동화 우려...국내 제조업 공급망 지켜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5340.html
- 한국무역협회(2025.1.21.), 「트럼프 2기 정책 방향 및 행정명령 예고」.
- 한국무역협회(2025.2.8.), 「트럼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도입 계획 언급」.
- 한국무역협회(2025.2.10.),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 한국무역협회(2025.2.12.),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 및 목적」.
- 한국무역협회(2025.2.20.), 「트럼프, 수입산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 최소 25% 부과 예고」.
- 한국무역협회(2025.2.27.), 「美 싱크탱크의 트럼프 관세의 위험성 지적 및 정책 제언」.
- 한국무역협회(2025.3.4.),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3월4일) 및 수입 자동차 관세 시행 관련 논쟁」.
- 한국무역협회(2025.3.5.), 「트럼프 관세전쟁 확대 양상 및 트럼프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
- 한국은행(2019),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 한국은행(2025), 「경제전망보고서(2025년 2월)」.
- 한국은행(2025), 「최근(2025.1월)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 Klein, A & Meissner C. M(2025), "Did Tariffs Make American Manufacturing Great? The New Evidence from the Grilled Age.." NBDR Working Paper 33100.
- OECD(2025.03.), "Steering through Uncertainty." OECD Economic Outlook..
- Washington Post(2025.03.09.), "Trump's Tariff Face a Long Odds in Bid to Bring Factories Home."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5/03/09/trump-tariffs-factories/>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주요 발언 및 주요국 대응>

국가	날짜	주요 대응
캐나다	'25.2.12.	• EU지도부 방문 및 약속회동을 통해 CETA 강화 및 양측 간 무역확대·공급망 다각화 노력에 합의
	'25.3.3.	•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 발효 및 21일 이내 2차 추가 관세 시행 예고
	'25.3.6.	• 美의 對캐나다 관세 부과 1개월 유예 결정에 따라 캐나다도 2단계 보복관세 연기 발표. 이미 시행한 1단계 보복관세는 그대로 유지
	'25.3.7.	• 트럼프의 對캐나다 목재·유제품에 250%의 상호관세 부과 예정 발표에 캐나다 외교장관, '트럼프의 사이코 드라마'라며 강하게 비판
	'25.3.10.	• 미국과 국경 인접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요금 25% 할증, 향후 무역 갈등 고조 시 추가 할증 또는 전력 공급 차단 예고
	'25.03.12.	• 캐나다 은행,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0.25p% 인하
	'25.03.13.	•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에 298억 CAD(약 30조원) 규모의 25% 관세 발효, 3일 부과한 관세와 합쳐 총 600억 CAD 규모의 관세 부과
	'25.03.14.	•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미국제품 보이콧 확산, 관세 적응 위해 공급망 전환 움직임
	'25.03.15.	• 캐나다,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재검토 의사 표명
	'25.03.17.	• 캐나다 신임총리, 프랑스와 영국을 차례로 방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 통해 美관세에 맞선 연합전선 구축
중국	'25.2.4.	• 美의 對中 10% 추가관세에 1차 보복관세(10~15%) 발표 - 미국산 석탄·LNG에 15% 추가관세, 원유 등에 10% 추가관세
	'25.2.9.	• 엔비디아·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25.2.10.	• 對美 1차 보복관세 발효
	'25.2.16.	• 핵심 기술, 기술자, 장비의 이전 및 수출 통제 등 첨단기술 규제 강화
	'25.2.27.	• 美의 구리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에 해당 조사의 빠른 중단 촉구 및 구리 관세 부과 시 강경 대응 예고
	'25.3.4.	• 美의 對中 10+10% 추가관세에 2차 보복관세(10~15%) 발표 -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대한 관세 15% 인상 및 수수, 대두, 돼지고기, 수산물, 과일 등에 10% 인상
		• 美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 중국과의 수출입 및 중국 내 신규투자 금지, 15개 업체에는 핵심광물 수출 금지
		• 미국산 원목 수입 중단, 미국의 對中 대두 수출 자격 정지, WTO 제소 등 비관세 보복 병행
	'25.3.10.	• 對美 2차 보복관세 발효
		• 中, 메트럼프 대통령과 6월 정상회담 논의 착수
	'25.3.11.	• 中양회 폐막, 5% 안팎의 성장 목표 내걸고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해 AI·바이오·양자 기술 등 신산업 투자 확대 의지 표명, '미국 없는 경제'를 염두에 둔 산업 구조 전환 박차
	'25.3.11.	• 中, 러시아·이란과 전 세계 석유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 합동훈련 실시

국가	날짜	주요 대응
중국	'25.3.12.	• 中, 세계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 경영진을 소환해 규제 협상 진행, 최근 美의 對中 관세로 인한 비용을 중국 유통업체와 소비자에 전가하려는 행위에 강경 대응 입장 표명,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조치로 해석
	'25.3.14.	• 中, 러시아·이란과 베이징에서 회담 개최,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 논의 • 中시진핑, 3월 23~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발전포럼에 참가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회동 추진, 중국에 투자해온 글로벌 기업인들의 지원 요청 예정
	'25.3.19.	• 中정부, 미국에 기술유출 우려로 BYD의 멕시코 건설 승인 지연
EU	'25.2.2.	• 트럼프의 對EU 관세 부과 언급에 강경대응 입장 발표
	'25.2.19.	• EU, 美의 관세부과 위협 회피 위한 협력 패키지 제안(자동차 관세 인하, 미국산 무기 구매 및 LNG 수입확대 등)
		• EU, 트럼프의 'VAT=관세' 주장 전면 반박 • 美농산물 표적해 수입 농식품 대상 규제 강화 예고
	'25.2.28.	• 인도와 연내 FTA 타결 추진, 양측 간 경제협력 강화
	'25.3.5.	• 유럽 자동차 산업 부흥을 위한 액션플랜 추진 (유럽 자동차 부문 산업 행동계획 공개, 배터리와 전기차 집중 지원, 불공정 무역방어 추진 등)
	'25.3.6.	• 유럽의 재무장 추진 등 자강 행보 본격화: 약 1258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미국산 무기 의존도 줄이기 위한 유럽산 무기 구매, 유럽 방위산업 부활 지원 등
		• 유럽중앙은행(ECB), 예금 금리와 기준금리 0.25%p 인하
	'25.3.10.	• 미국이 유럽의 군사, 경제 안보를 위협할 경우, 미국에 대해 항생제 등 필수약품을 맞대응 카드로 검토하겠다고 발표
	'25.3.12.	• EU집행위, 美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260억 유로(약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단계 관세 부과(4.1일~) 계획 발표, 2단계 관세 부과(4.13일~)는 총 180억 유로(28조 원) 상당의 美 공화당 민감품목 표적
멕시코	'25.3.14.	• 영국 에너지 장관,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료들과 회담 진행해 중국과 트럼프의 반환경 정책 대응 행보
	'25.3.19.	• EU집행위,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골자로 하는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을 발표, 4.1일부터 유럽 내 철강 수입 쿼터 15% 감축 예정
		• 美빅테크 압박: EU집행위, 구글과 애플의 디지털시장법 위반 판정, 해당 법 위반 최종 확정 시, 구글은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 부과
	'25.3.5.	• 기준금리를 4년만에 0.5%p 인하하는 빅컷 단행, 트럼프 관세위협 선제대응
멕시코	'25.2.24.	• 美의 對멕시코 관세 압박에 美와 함께 對中 관세 검토 착수
	'25.2.28.	• 美가 현상금 265억원 내걸고 40년간 쏜던 멕시코 마약왕을 美에 인도
	'25.3.5.	•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알루미늄 반덤핑 조사 개시

국가	날짜	주요 대응
멕시코	'25.3.10.	• 중국산 밀수품 단속 강화로 215억 원 어치 중국산 제품 적발
	'25.3.12.	• 멕시코 대통령,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대화 지속 의지 표명, 보복관세 부과 여부는 4.2일 결정 예고
브라질	'25.1.30.	• 트럼프의 對브라질 관세 부과 시 보복관세 예고
	'25.2.12.	•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에 쿼터제 유지 위한 對美 대화 요청
	'25.2.26.	• 브릭스를 통한 다자주의 강조, 중국과의 협력 강화 예고
	'25.3.5.	• 오는 7월 브릭스 정상회의에 멕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초청
일본	'25.2.7.	• 트럼프-이시바 정상회담 통해 對美투자 확대, 미국산 LNG 수입 확대, US스틸의 인수 철회 및 투자 전환, 방위비 증액 등을 제시
	'25.2.12.	• 美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요청
	'25.2.27.	• 이시바, 美에 수송기 구매 의사 전달
	'25.3.10.	• 日경제산업상, 美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앞두고 미국 방문, 관세 대상 제외 설득 총력
	'25.3.12.	• 日경제산업상, 美의 對日 관세 적용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보다 긴밀한 의사소통 지속을 통해 자동차 관세 제외 요청 예정이라고 발표
	'25.3.17.	• 日혼다, 美관세 회피 위해 일본과 중국에서 구매해 미국 공장으로 수출했던 하이브리드차 배터리를 美도요타 공장에서 조달 결정
	'25.3.18.	• 日정부, 美정부와 실무 수준의 관세 협의 착수에 합의, 美정부의 요구 살펴 관세 정책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할 계획
인도	'25.2.13.	• 인도 모디총리-트럼프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에너지·군수품 구매 확대, 국 간 무역협정 체결 및 교역 5천억 달러 계획 발표
	'25.2.15.	• 위스키·고급 오토바이 등에 대해 기본관세 인하
	'25.2.27.	• 자동차, 일부 농산물, 화학제품, 필수약품, 의료기기,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검토 착수
	'25.3.3.	• 美의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을 앞두고 美와의 무역협상 추진 위해 상공부 장관 불시 미국행
	'25.3.8.	• 트럼프, 인도와 對美 관세 대폭 인하 합의 주장에 인도 정부 즉답 회피
	'25.3.17.	• 인도 총리, 미국 과학자(렉스 프리드먼)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로드맵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며 트럼프를 자애롭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찬
	'25.3.18.	• 인도 상무부, 철강 제품에 대해 12%의 임시 관세 검토

국가	날짜	주요 대응
베트남	'25.2.14.	•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의지 표명
	'25.2.21.	• 중국 최대 철강업체의 일부 철강 제품에 19.38~27.83%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3.7일 발효)
	'25.3.1.	• 베트남 총리, 하노이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 등에게 '스타링크 사업 허가의 신속한 발급'을 약속 (스타링크는 일론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의 위성 기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 '20년대 초 베트남 진출을 추진했으나, 베트남 정부의 제재로 좌절된 바 있음)
	'25.3.13.	• 베트남 경제사절단, 미국을 방문해 미국 기업들과 41.5억 달러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 (에너지 및 광물 분야) 구매 협약 체결, 현재 36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앞두고 있어 올해부터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협력 규모 903억 달러 예상
	'25.3.14.	• 베트남 정부, 미국산 LNG, 농산물 등의 수입 관세 인하 추진
대만	'25.2.14.	• 對美 투자·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촉진 및 국방 예산 증액 발표
	'25.3.3.	• TSMC, 美에 1천억 달러 신규 투자 약정
	'25.3.6.	• 대만 정부, TSMC의 對美 투자는 메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며, 미국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
	'25.3.17.	• 대만 정부, 중국 침공을 대비한 새 군사 훈련 돌입
	'25.3.20.	• 대만 정부, 중국의 위협 증가에 따라 국방 예산을 GDP의 3% 이상으로 증액 결정, 다만 트럼프가 요구한 10% 이상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
	'25.3.21.	• 대만 정부, 트럼프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결정



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

발 행 인 조주현

편 집 인 이동주

발 행 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07074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s://www.kosi.re.kr>

인 쇄 처 디플러스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